

# 한힌샘의 言語 및 文字 理論

李 基 文

1. 우리 나라 言語學의 歷史에서 獨創的인 理論을 발전시킨 學者로는 世宗大王에 의해서 대표되는 訓民正音 學者들과 한힌샘 周時經(1876~1914)을 들 수 있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15世紀에는 中國의 音韻學과 文字學을 導入하여 그것을 발전시켰고 19世紀와 20世紀의 交替期에 한힌샘은 우리 나라의 傳統과 外來의 新學問에서 극히 적은 것을 받은 처지에서 거의 獨自的으로 국어를 연구하여 주목한 만한 理論을 수립하였다.

우리 나라 言語學의 오늘의 狀況은 어떠한가. 한힌샘의 시대에 비하면 여러모로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學者의 數가 늘고 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어에 대해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 構造와 歷史에 관한 상당히 깊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學問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獨創性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言語學을 볼 때, 우리는 이대로 晏如할 수 없음을 느낀다. 그 동안 우리는 歐美의 理論과 方法을 받아들여 그것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적용에 만족을 느끼고 이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타성에 젖게 되었다.

여기서 筆者는 우리의 言語學을 결코 悲觀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우리 民族은 특히 言語 研究에 있어 남달리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筆者는 믿는다. 위에 말한 두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동안 너무나 엄청난 外來 理論의 重壓 밑에 놓여서 우리 特有的 獨創性이 미처 발휘되지 못한 것 뿐이다. 실상 外來的인 것을 극복한 뒤의 獨創性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獨創性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1907년에 學部 안에 개설된 國文研究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拙著 1970)를 행하면서 한힌샘의 學問에 부딪혀 늦게나마 새로운 認識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그가 쓴 글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한힌샘의 탄생 百周年을 기념하여 그의 論著들을 모아 간행한 것(拙編, 1976)은 그의 學問을 再吟味하는 것이 우리 學問을 定立해 나가는 基礎作業의 하나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한힌샘의 生涯와 學問에 대해서는 그의 弟子를 비롯하여 많은 분이 글을 써 왔다(拙編 1976, 下卷末의 目錄 참고). 이 글들이 한힌샘에 대한 筆者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위의 全集에 解説을 쓰고 미진했던 것을 拙稿(1976)에 정리한 뒤로 筆者는 한힌샘의 學問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한힌샘의 言語 및 文字 理論에 대하여, 주로 그 獨創性에 焦點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 本稿의 의도하는 바다.

2. 한힌샘의 學問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背景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한힌샘은 우리 나라에서 이른바 新教育을 받은 첫 世代의 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그의 學 歷 및 經歷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몇가지 사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힌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培材學堂(1885 창립)이었다. 培材學堂은 당시 유일한 新教育

機關이었는데, 여기서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이 學堂은 初期에는 많은 강의를 영어로 할 정도로 서양 학문의 직접적 영향 밑에 있었다는 점이다. 한힌샘이 이 학당에 다닌 시기(1894~1900)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힌샘은 培材學堂의 萬國地誌 特別科와 普通科를 졸업하였다. 그는 萬國地誌를 徐載弼로부터 배웠으며 이것이 이 두사람을 가깝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萬國地誌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外部世界에 관한 知識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학과였는데, 이것이 한힌샘의 學問에 넓은 視野를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 여러 언어와 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잘 닦아 쓰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은 주로 이 학과를 통해서였던 것 같다.

세째, 培材學堂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한힌샘의 국어·국문 연구에 직접 기반이 된 것은 영어였다. 그는 「대한국어문법」(下, 54면)<sup>1</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어 알바벨과 일문 가나를 좀 배호고 류구 만주 몽고 서장 셉라 인도 파스 아랍 이금 옛희부터 글자들과 유주 각국 글자들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영어문법을 좀 배웁은 다 국문 연구에 유익홀가 흡인 덕……

그의 문법 지식이 영어 문법에서 온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가 日本語 文法을 보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점 俞吉濬의 문법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네째, 한힌샘은 일찍부터 數理學을 배웠다. 培材學堂에도 數理學 과목이 있었지만, 利運學校와 興化學校에서 航海術과 量地法을 배운 것도 이 방면의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힌샘이 數理學에 큰 관심을 가졌었음은 그가 精理舍에서 修業한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精理舍는 柳一宣이 설립한 數理學 專門의 교육기관으로 開化期의 대표적 數理學者들을 많이 輩出한 곳이었다. 한힌샘이 30歲가 지나서, 그것도 국어학자로서 한창 바쁘게 활약하던 시기에 3년간(1906~1909)이나 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數理學에 대한 그의 관심이 凡常한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그의 경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립신문」(1896年 4月 7日 창간)에서 국문을 담당하게 된 일이다. 이 일이 국문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고 그가 語文運動의 第一線에 나서는 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가 이 신문사 안에 조직한 國文同式會는 한힌샘 개인으로서 語文運動의 公的 出發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語文運動史의 第一章을 연 것이었다.

여섯째, 당시 培材學堂에 인쇄 시설이 있어 그는 일찍부터 인쇄 및 출판과 가까운 관련을 가졌다. 「독립신문」도 여기서 찍어냈었다. 이 경험이 그의 文字 理論의 形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後述할 바와 같다.

3. 우리 나라의 文字體系·表記法을 통일해야겠다는 것이 한힌샘이 국어·국문을 연구하게 된 첫 動機였다. 1897년에 「독립신문」에 실린 「국문론」(上 1~20)이 그가 公表한 첫 논문이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97년 봄에 「국문식」一卷을 대강 마쳐 여러 벗에게 보였다고 한다(대한국어문법, 下 66). 公刊되지는

<sup>1</sup> 本稿에서 한힌샘의 論著에 붙인 面數는 拙編(1976)에 의한다.

않았으나, 이것은 그가 쓴 최초의 單行本이었다.

「국문론」에 대해서는 別稿(1977)에서 논한 바 있지만, 이것은 아주 당당한 한편의 文字論이다. 이 때에 이미 文字에 관한 한힌샘의 理論이 확고하게 서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筆者는 이 글에서 한힌샘이 文字와 言語를 분명히 구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무렵에는 歐美에서도 이 구별이 아리송한 예가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한글 專用의 理論을 처음으로 제시한 글로서 큰 歷史的 意義를 지닌다. 한힌샘이 세계의 여러 文字를 섭렵했음은 前章의 引用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는 이 글에서 세계의 문자를 크게 ‘말하는 음더로 일을 기록하야 표하는 글즈’와 ‘무슨 말은 무슨 표라고 그려 놓는 글즈’로 나누고, 後者에 속하는 漢字의 폐해를 누누히 논하였다. 그리고 국문만으로 능히 국어를 표기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글즈라 하는 거슨 다몬 말몬 표하였시면 족하겠마는 풍속에 거릿겨서 그리하느니 한문 글즈에는 꼭 무슨 조화가 부흔 줄노 녀혀 그리 하느니 알 수 업시니 진실노 위척호 일이로다.

한힌샘은 특히 文字論에 있어서 急進의인 理想主義者였다. 위의 ‘국문론’의 끝 부분에서 글을 쓸 때에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써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편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橫書를 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지만, 그는 무엇이나 좋고 편리한 것이면 어떤 改革도 제의하기를 서슴치 않았었다. 나중에 「國文研究」에서 그는 국문이 “或橫或縱”하여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橫書’(요즘 말로는 ‘가로풀어쓰기’)를 제안한 것도 이런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제의한 근거로 그는 橫書가 “發音의 先後가 順하고 教曉하기가 亦便하며” “鑄刊하기에 至要한” 점을 들고 있다(上 457면). 여기서 ‘鑄刊’을 말한 것은, 第二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출판에서 실제로 얻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힌샘의 ‘가로쓰기’는 「말의 소리」에서 일단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下 686면). 이것이 그뒤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4. 한힌샘이 국어·국문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뒤 첫 연구 대상으로 택한 것이 ‘아래아’(·)였다.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1893년에 “國文 母音字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의 分合됨을 研究하다가 ·는 ㅏ가 안이요 ㅑ의 ㅓ음이 되리라 覺悟”하였다고 한다(國語文典音學, 下 214~215면). ‘아래아’를 연구하게 된 動機는 새로운 文字體系의 確立에 있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 그는 새로운 국문 체계에서는 ‘·’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sup>2</sup>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母音字의 音價論은 國語의 歷史的 研究에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主題가 되었었다. 이 연구의 첫 시발로서 한힌샘의 연구는 기억될 만한 것이다. 이 研究史에서 우리는 두 갈래의 흐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한힌샘에 있어서처럼 文字論과 밀접히 결부된 것으로 이 흐름은 최현배(1942)에로 이어졌다. 또하나의 흐름은 순수한 音韻史의 研究로 李崇寧(1940)에서 시작된 일련의 연구에 이어졌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의 音價에 대한 한힌샘의 推定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證明 方法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에 관한 敘述은 「대한국어문법」에 보이는 것이 가장 이른 것이다.

<sup>2</sup> 이에 관해서는 拙稿(1970), 95면 참고.





음이 국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의 모음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둘째, 모음에서 ‘ㄱ, ㅋ, ㆁ, ㆁ’ 등도 습음으로 보았다. ‘ㄱ, ㅋ’가 單母音임이 밝혀지고 여기에 다시 ‘ㄱ’가 추가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최현배 1929). 現代 國語學史를 종람하면, 처음에는 현대국어에서 이들이 단모음임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들이 中世國語에서 二重母音을 나타내었음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한힌샘은 된소리를 雙音(작거듭소리)으로 보았다. 이로써 된소리를 ‘ㄱㄱ’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이 주장이 역사적으로도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 주장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최현배(1941)는, 그 머리말에 보면, 이 ‘갈바씨기’(並書)의 역사적 이론적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데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힌샘의 주장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一例라고 하겠다.

위의 略述에 나타난 한힌샘의 연구방법은 ‘分析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나눌 수 없는 순일한” 單位(元素)라는 표현은 나중에 歐美에서 音韻論이 발달한 뒤 音素의 定義에서 자주 들은 것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적 방법이 궁극적으로 辨別的 資質에 도달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한힌샘의 音韻 理論은 이런 分析的인데 머무르지 않았다. 한힌샘은 이보다 더 흥미깊은 또하나의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術語로 ‘本音’의 理論이라고 이름붙일 수가 있다. 「대한국어문법」에 보면 주로 받침과 관련하여 “그 말의 원체와 본음과 법식”이란 표현을 자주 썼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예를 들면 ‘뉘어도, 뉘으면, 뉘고, 뉘는’이라고 쓰는 것이 이 말의 ‘원체와 본음과 법식’에 옳은 것이요 ‘더퍼도, 더프면, 더고, 더는’이라고 쓰는 것은 그르다는 것이다. 즉 ‘뉘-’이 ‘-고’나 ‘-는’ 위에서 ‘뉘-’으로 나는 것은 ‘接變’의 規則에 의한 것이다. 이 책에서 한힌샘은 그의 ‘接變’의 理論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本音의 理論을 前提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이 책에 실린 接變의 처음 두 규칙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ㄱ이 ㄴ이나 ㄹ이나 ㅁ 위에서는 ㅇ으로 변함. (본) 백百년, 백百里, 백百만萬,  
ㄴ이 ㄹ 위에서는나 앞에서는 ㄹ로 변함. (본) 천千里, 팔八년.<sup>6</sup>

이들 예에서는 ‘백, 천, 년’ 등을 本音으로 봄으로써, 이들의 末音이나 頭音이 ‘ㄱ→ㅇ, ㄴ→ㄹ’로 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國語文典音學」(下 208~209면)에서 ‘뉘’(友)와 ‘뉘-’(蔓)이 子音 위에서 相同하게 되는 것은 “臨時的 自然한 音理”요 ‘百年’은 “臨時的 音”으로는 ‘빙년’이라고 하였다.<sup>7</sup> 筆者는 이 ‘本音’과 ‘臨時的 音’의 이론에 접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生成音韻論의 基底表示(underlying representation)와 音聲表示(phonetic representation)의 이론을 연상하였다. 이것은 비단 筆者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한힌샘의 表記法 理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말한 ‘本音’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종래 써온 일곱 받침 외에 ‘ㄱㄱㅏㅑㅓㅕㅗㅛ’ 및 ㄱㅑㅓㅕㅗㅛ 등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이론에 의한 것이었다. 한힌샘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위에 말한 새로운 받

<sup>6</sup> 이 규칙 뒤에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註記가 붙어 있다. “歐洲 말에 ㄴ音이 ㄹ을 만나되 其 ㄴ을 억지로 발음함으로써 ㄹ연호 태세를 잃더라.” 그는 자기가 세운 규칙이 普遍的인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어에 연유한 이런 편견은 그의 저술에 간혹 보인다.

<sup>7</sup> 이에 관한 자세한 論述이 「國文研究」에 보인다(上 411면 이하 참조).

침의 주장을 한 것은 1896년에 조직된 國文同式會에서였다고 한다(國語文典音學, 下 215면). 아마도 이 무렵 그의 머리 속에 本音의 理論이 싹튼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헌샘의 音學에 자주 나타나는 ‘音理’란 말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이기로 한다. 한헌샘은 그의 音學에서 普遍的(universal)인 理論의 追求를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있었음이 여러 文脈에 나타나는데, ‘音理’란 바로 이런 普遍的인 音韻規則을 가리킨 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어에 특수한 규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어의 예습”이라고 하여 그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가 세운 보편적 규칙들의 타당성은 제쳐놓고, 이런 생각을 한 그 자체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6. 「國語文法」의 맨끝에 붙어 있는 ‘이운글의 잡이’(下 340~342)는 이 책의 집필 지침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그 첫項에 이 책은 “우리 나라 말의 들을 말하는 것이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라고 있다. ‘들’이란 질서, 법칙을 의미한다.<sup>8</sup> 그의 문법 연구의 기본 정신은 다음의 一項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全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으로 웃음을 삼아 꿈임이라. 그러나 우리 나라 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

여기서 “全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이란 말이 주목된다. 그는 머리 속에 어떤 普遍的인 文法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아마도 전통적인 영어 문법의 틀 비슷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나름대로 이런 문법의 관점에서 국어 문법을 체계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國語文法」에서 받는 가장 깊은 印象은 거기에 일관된 分析의 方法이다.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간혹 미흡한 데가 있기도 하지만 그는 사실상 모든 단어를 그 究極의 構成素로 해체해 놓고 있다. 특히 이 책의 끝부분을 이루는 ‘기똥박굽’(下 325이하)에서는 국어의 單語形成에 관한 매우 요약된 記述이 보인다. 그 一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下 326면)

임엇본임, (임똥이 엇똥되고 다시 임똥되게 하는 것)

(정함) 정은 漢字 精의 音인데 우리나라 말에 漢字音을 섞어 씀이 있되 다 임똥으로만 씀으로 그 임똥 되는 정에 하를 더하여 임똥을 만들고 다시 口을 더하여 임똥이 되게 한 것.

그의 「國語文法」의 最終版이 된 「朝鮮語文法」再版(1913)에서는 ‘기’(品詞)가 ‘씨’로 바뀌어 제목이 ‘씨똥박굽’이 된 것을 비롯하여 ‘엇본임, 임엇본임’ 등의 ‘본’이 ‘밋’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엇밋음’의 一項이 새로 추가되었고 그 예로 “갓호(엇똥 갓에 호를 더한 것)”, “굳히(엇똥 굳에 히를 더한 것)” 등을 들고 있다. 形容詞派生動詞의 예들이다.

한헌샘은 그의 마지막 著書인 「말의 소리」에서 形態分析에서 도달한 最少單位에 ‘늦씨’란 이름을 붙였다(下 624). 이 책에서 ‘고나’를 설명하여 “말의 소리의 늦이니……”(下 624)라 한 것을 미루어 보면 ‘늦’은 究極의 實體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는 ‘해바라기’를 ‘해, 바라, 기’의 세 늦씨로 분석한 것을 實例로 들고 있다. 이 ‘늦씨’의 概念에 대해서는, 특히 歐美 言語學의 形態素(morpheme)의 그것과의 관련에서, 논의된 것이 있다(金敏洙 1961, 李乘根 1980).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된 이들의 概念이 같지 않음은 오히려 당연하

<sup>8</sup> 한헌샘의 새로운 술어 중에는 語源을 찾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설명을 꺼한 것이 있었지만, “별도 들이 있지”란 우리 나라 속담이 있음을 여기에 지적해 둔다. 별의 사회에도 질서가 있다는 말이다.

다 하겠으나, 이것은 한힌샘의 分析의 깊이, 理論化的 끈질긴 追求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한편 한힌샘의 「國語文法」은 국어 統辭論의 開拓的 業績으로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筆者는 믿는다. 그는 ‘짬뽀’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들을 통하여 국어의 문장 구조를 밝히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그가 ‘속뜻’을 표시하려고 무척 애썼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한 문장에 대하여 ‘그림’을 몇가지로 그리기도 하였다.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의 경우(下 269~270)를 비롯한 여러 예들은 오늘날 국어 통사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示唆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한힌샘은 그의 ‘그림’에서 ‘속뜻’으로는 존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ㅅ’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深層에는 있는 것이 表層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것이었다. 이 ‘ㅅ’이 사용된 최초의 예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ㅅ	ㅅ	ㅅ
ㅅ	ㅅ	는다

이런 표시 방법은 최현배(1937)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제자들 사이에 계승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통사론에 관한 限, 한힌샘 이후 오랫동안 그의 이론이 그대로 답습되었을 뿐, 새로운 발전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이 방면에 있어서의 그의 업적은 큰 것이었다.

筆者는 한힌샘이 形態論과 統辭論에서 보여준 연구방법과 이론은 근본적으로는 音韻論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씨’는 ‘元素’, 「말의 소리」의 術語로는 ‘고나’에 對比될 수 있는 것이요, ‘속뜻’은 ‘本音’에 對比될 수 있는 것이었다.

7. 한힌샘의 학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졌다. 그의 여러 論著에서 이 變貌 過程을 면밀히 追跡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術語의 改新이다. 특히 音學에서는 「대한국어문법」에 쓰인 漢字語들이 점차 그 특유의 새말로 바뀌어 「말의 소리」에서 완성되는 과정을 흥미있게 볼 수 있다. 文法에서도 「國語文法」에서 「朝鮮語文法」初版을 거쳐 그 再版에 이르는 동안에 상당한 改新이 있었다.

이보다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理論의 발전이다. 위에서 ‘ㅎ’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고민한 흔적을 더듬어 보았거니와, 그는 무연한 별관을 혼자서 일구면서 무척 많은 고민을 한 것을 그의 글들에서 역력히 읽을 수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방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힌샘은 특히 音韻 理論에서 이런 변모를 보여주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그의 ‘接變’의 理論에서 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에 관한 그의 論述은 「대한국어문법」에 처음 보인다. 그런데 이 때에 이미 그는 심상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었다.

포가 ㅎ외에 많은 즘음 우에서는 그 자리에서 ㅂ 소리만 나고 그 알에 子音은 ㅅ음을 만들어 주며 그 알에 子音이 ㅅ음이면 더 ㅅ음으로 만들어 주니라. 音義에는 당연히 이리할터 우리나라 말에는 포가 달은 즘음 우에서는 ㅂ과 ㅅ이만 소리나매 모음 우에서는 포가 다 소리나느니라. (본) 덮고는 ㅅ음의 음덕로는 ㅅ음이 될 터인데 우리 국어 ㅅ음으로는 ㅅ음이라 하는 것 ㅅ음 것들과 ㅅ음은 ㅅ음이라



발음하는 것들 같은 것들이니 이는 곳 고를 다 소리냄이라(下 134~136면).

ㅈㅊ字는 달은 子音 우에서는 音義터로는 ㄷㅎ, ㅈㅎ와 같이 소리가 날터인데 우리 말 레습에 조흔 누르기만 하며

쫓고는 ㄷ연의 음터로 쫓코가 될터인데 우리 국어 레습터로는 쫓고 곳 쫓코가 되며 말고는 만코라 홀터인데 말고 곳 되코가 되느니라(下 136면).

한헌샘은 有氣音을 ㅈㅊ과 ‘ㅎ’의 습습으로 보았으니, ‘덜고, 쫓고, 말고’의 경우 ‘ㄱ’이 ‘ㄱ’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고심한 것이다.

이 現象에 대하여 「國語文典音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下 192 이하). 여기서 한헌샘은 이 현상을 ‘子音의 接變’에서 떼어내어 ‘子音 初終聲의 形勢’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 그는 ‘接變’은 世界 言語에 普遍的인 것으로 보고 (“我國의 習慣이 아니요 音理에 自然한 形勢니라”) ‘子音 初終聲의 形勢’는 우리 국어에 특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ㄱㅈㅊ토’ 등이 音節의 終聲으로 날 때에는 ‘ㅎ’은 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의 소리」에 와서 다시 제기되었다. 이 책에서 한헌샘이 부딪친 가장 큰 문제는 ‘뫼’를 어떻게 잡아야 옳은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가 고민한 문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류에는 언어의 多樣性에서 온 예들이 있었다. ‘숯을, 솟을, 술을’의 混用(下 658면)이나 ‘샘, 험’, ‘닷고, 당고’의 混用(下 659면) 같은 것들이다. 또 하나의 부류에는 바로 위에서 말한 音節末의 有氣音의 예들을 비롯한 여러 예들이 있었다. 그는 ‘눅으면’과 ‘눅고’의 예에서 ‘뫼’를 결정하는 세가지 가능한 방안을 지시하였다. (1) 모음 위에서는 ‘눅’, 자음 위에서는 ‘눅’의 두가지로 잡는 방안 (2) ‘눅’ 한가지로만 잡고 ‘눅고’의 경우도 ‘눅고’로 보면 ‘고’ 속의 ‘ㅎ’은 “말의 익음”으로 나지 않는다고 보는 방안, 이것이 종래 그가 취해온 해결책이다. (3) ‘으면’이 때로 ‘호면’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면, ‘ㅍ’과 ‘ㅂ’을 두루 쓴다고 할 것 없이 언지든지 ‘ㅂ’이라고 하는 방안(下 662~663면). 그의 고민은 ‘없으면’과 ‘업고’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1) 여기서 ‘뫼’를 ‘없’과 ‘업’의 두가지로 잡는 방안. (2) ‘업’으로만 잡는 방안. ‘안고’가 ‘안ㅍ’로 발음됨에 비추어, ‘업스면’도 “말의 익음의 그릇”이라 하고 ‘업으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토에서 ‘ㅎ’과 ‘ㅇ’이 통용됨을 따르고 ‘ㅎ’과 ‘ㅅ’이 통용됨을 감안하여 ‘스면’을 토로 볼 수도 있다(下 667~668면).

이렇듯 그는 ‘뫼’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1)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의 表記法을 보면 ‘눅고’(下 662면), ‘업게’(下 631면)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日變則’ ‘ㅅ變則’의 예들에 대해서는 이 책이 단일한 ‘뫼’를 인정하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下 654~655면). 따라서 이 책에서 우리는 ‘쉽은’(下 635면) ‘잇을’(下 655면)과 같이 표기된 예를 보게 된다.

이것은 그의 音韻 理論에 있어서의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의 表記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는 적어도 「國語文法」에 이르기까지 ‘눅’ ‘없’에 하나의 ‘뫼’를 두는 원칙을 굳게 지켜 왔던 것이다.

8. 한헌샘은 제자들에게 크나 큰 感化를 주었다. 그의 제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스승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친 헌신적 노력은 우리 나라 言語學의 歷史에서 가장 감격적인 一章이다.

그런데 정작 한힌섬의 獨創인 理論은 제대로 계승 발전되지 못했다. 그 眞髓가 빠져버린 것이다. 本稿에서 그의 理論을 다시금 생각해 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理論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첫째, 한힌섬의 理論은 그 時代의 學問의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젊은 제자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둘째, 그의 제자들은 外來 理論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셋째, 우리 나라의 형편이 學問의 순조로운 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절박한 현실 문제(맞춤법 제정, 표준어 사정, 사전 편찬 등)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할 처지에서 基本理論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한힌섬의 學問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그의 ‘짚듬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要望된다.

###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9) 周時經의 文法理論, 韓國學報 7.  
 金敏洙(1961) ‘늦세와 morpheme,’ 국어국문학 24.  
 ——(1977) 周時經 研究, 塔出版社.  
 李基文(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1972) 國語音韻史研究, 再版(1977), 塔出版社.  
 ——(編)(1976) 周時經全集, 亞細亞文化社.  
 ——(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學報 5.  
 ——(1977) ‘十九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還曆紀念論叢.  
 李秉根(1979) ‘周時經의 言語理論과 늦씨,’ 國語學 8.  
 李崇寧(1940) ‘··音攷,’ 震檀學報 12.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延禧專門學校 出版部.  
 ——(1937) 우리말본, 正音社.  
 ——(1942) 한글갈, 正音社.

### ABSTRACT

Chu Si-Gyong: A Reconsideration of his Linguistic Theories

Ki-Moon Lee

The present paper is an attempt to revalue the linguistic theories developed by Chu Si-Gyong (1876~1914), alias Han Hin Saem, who was the initiator and leader of the standardization mo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writing systems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Although hi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linguistics was great, his original ideas set out in his various works have not been fully evaluated by his followers.

First of all, it must be pointed out that his main interest was in the study of Modern Korean. Although there are indications of indiscrimination between synchronic and diachronic treatments in his early works, his later works clearly show that he realized the dichotomy between synchrony and diachrony. His grammar (1910) is interesting in that its sections on morphology and syntax are strictly synchronic, whereas its phonology section includes various diachronic data. His last work (1914), however, is a synchronic phonology of Modern Korean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What is most impressive in his scholarly attainments is his creative efforts to set up his own phonological and theories. As a matter of fact, there were hardly any theories and methods readily available to his research. What he could learn from his predecessors in linguistic studies was extremely limited; the traditional classificatory scheme of sounds from Korean teachers and some rudimentary knowledge of school grammar from Western teachers, including the vowel versus consonant dichotomy and parts-of-speech system. In such circumstances it appears that he found the methods of natural sciences applicable to his linguistic analysis. The method he developed in phonology and morphology can be characterized as 'analytic'. In phonology he posits 'elements' and explains all other sounds as 'complexes of those elements'. Such a method is also apparent in his morphological analysis. It is noteworthy that in his later works he elaborated his methods of analyzing words into their minimum meaningful components.

Furthermore, Chu developed his theories of 'original form' and 'hidden meaning' in phonology and syntax respectively. He asserted that one should write *epsko* 'lacks and' even though it is actually pronounced as *epko*, because *eps-* is the 'original form' of the stem and *ep-* is merely its 'temporary form'. It was his strong contention that new Korean orthography must represent the 'original forms'. It is easily recognized that his theory of 'original form' and that of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in generative phonology are similar in their basic conceptions. In his syntactic study, on the other hand, Chu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revealing the 'hidden meaning' of sentences by postulating their 'original' structures.

15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접수: 1981. 11. 5)